

첫 '돼지고기 투자' ... 가능성 보였다

■ 돈육선물시장 출생 5개월

하루 평균 150 계약 ... 개인 참여가 절반 이상 소규모 농가 참여 확대·기본예탁금도 낮춰야

국내 농수산물 관련 최초의 선물시장인 돈육선물시장이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다. 돈육선물은 지난 5개월간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까지 꾸준히 늘어 정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농가의 활용미흡과 유동성 부족 등으로 완전한 활성화까지는 남

아야 할 산이 많다. <국내 첫 농축산물 관련 선물=돈육선물은 세계에서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번째로 개설된 것이며, 농축산물 관련 선물상품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돈육선물은 말 그대로 돼지고기 선물거래를 통해 가격변동을 위험을 막는 것이다. 양돈농가에게는 가격폭락

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육가공업체에게는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한다. 돼지고기 가격급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도 막아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상장된 돈육선물은 시장이 개설된 지 5개월이 지나면서 현재 하루평균 150계약이 거래되고 있는 상태다.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6억원에 달한다. 1계약은 지옥 1t으로, 돼지 약 13마리에 해당한다. 전체 계약에서 개인의 비중이 56%까지 꾸준히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육류 유통업자 등 참여 필요=현재 돈육선물 거래는 대규모 농가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들의 참여는 부진하다. 대규모 농가들도 거래량의 일부인 20% 정도에 대해서만 헤지를 하고 나머지는 가격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때문에 돈육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양돈농가의 참여를 높이고, 전체 거래물량에서 헤지를 하는 비중도 높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육류 유통업자 등 대규모 수요처의 참여가 절실하다. 증권선물거래소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육류 유통업자는 선물시장에서 매도에 적어 도 몇 백 계약은 있어야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은 시장 자체가 작아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동성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확대되려면

헤지 외에 투기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물업계에서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증권회사도 선물업무를 하게 되면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돈육선물에 참여하는 등 시장자본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예탁금 낮춰야=돈육선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돈육시장 '참가비'라고 할 기본예탁금 기준을 정부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좌개설에 소요되는 1천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은 개인투자자나 소규모 양돈농가 입장에서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NH투자선물 관계자는 "돈육선물을 도입할 당시 시장이 투기화되고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문턱'을 높였는데, 이것이 되레 시장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기본예탁금 기준을 낮춰 소규모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역 소비심리 '뽕뽕'

광주·전남 4분기 CSI 64 ... 전분기비 8P ↓

광주·전남지역 가계의 올해 4·4분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351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수입, 지출 등의 항목에 대한 소비자동향조사지수(CSI)를 통해 4·4분기 가계소비심리를 조사한 결과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환경 CSI의 경우 전분기(72)보다 8포인트 하락한 64로, 6개월 후 생활환경전망 CSI도 역시 전분기(85)보다 12포인트 하락한 73으로 매우 부진했다.

6개월 후 가계수입전망 CSI도 81로 전분기(91)보다 10포인트 낮아, 소비지출전망 CSI도 전분기(106)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1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가계수입전망에 있어 100만원대 이하 계층의 CSI가 75로 가장 낮아 저소득층 일수록 비관적인 수입 전망을 했다. 또 소비지출전망 CSI에서도 교육비(106), 의료보건비(111), 교통통신비(105)는 100을 넘어 어렵더라도 지출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항목으로 분류됐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가계저축 CSI(91→77), 6개월 후 가계저축전망 CSI(93→78), 주택·상가가격 전망 CSI(101→83), 금융저축가계전망 CSI(92→89) 등 자산가치에 대한 전망도 몹시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6개월 후 주식가격전망 CSI는 80에서 84로 소폭 상승했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설비투자 2년째 '내리막'

韓銀 분석 ... 올 연간 증가율 -0.2%

설비투자가 올해와 내년 에 잇따라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감소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만큼 그 타격이 깊고 오래 간다.

29일 한국은행과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는 환란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한은 분석 결과, 올해 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7.2%로 전분기의 4.7%에 비해 크게 악화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0.2%에 그친다.

내년에는 상반기 -8.4%, 하반기 1.1% 등 연간 -3.8%로 한은은 예상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간기준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은 환란당시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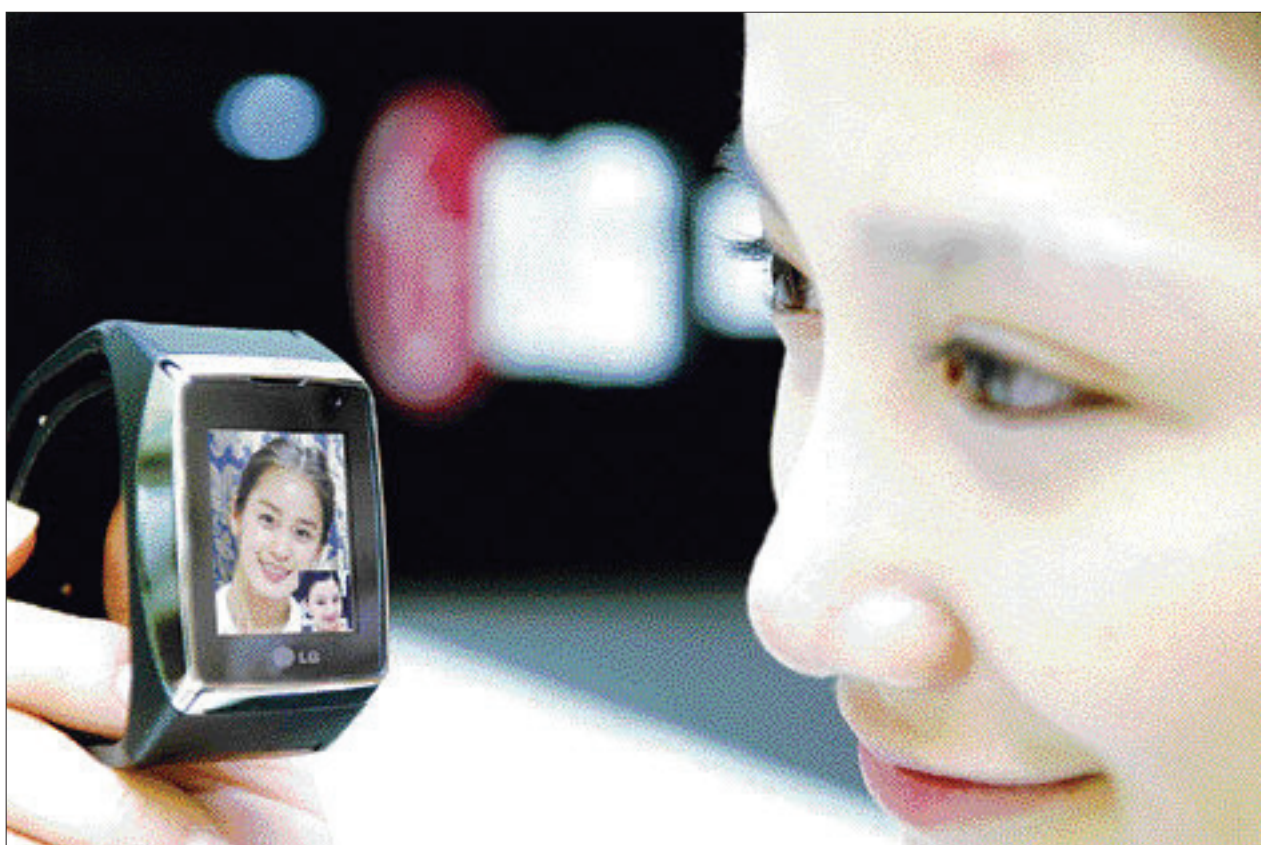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7년 -9.6% ▲1998년 -42.3% ▲1999년 36.8% ▲2000년 33.6% ▲2001년 -9.0% ▲2002년 7.5% ▲2003년 -1.2% ▲2004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2007년 10월 기준)

년 3.8% ▲2005년 5.7% ▲2006년 7.8% ▲2007년 7.6% 등이었다. 한은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원화의 약세 지속,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내년에 설비투자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초 전망에서 설비투자가 올해 2.1%, 내년에 1.9%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를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터치 폰' LG전자는 29일 영상통화가 가능한 시계모양의 3세대 '터치 와치폰(모델명 LG-GD910)'을 출시했다. 이 와치폰은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서 정식으로 선보인다. /연합뉴스

작년 세수 152조

17.5% 증가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310조 급증

지난해 경기호황 및 과세표준 양성화 등으로 국제 수입은 17.5% 증가했고 과세행정의 효율화로 미정리 체납액은 11.9% 감소했다.

<소득세 수입 25.5% 증가=29일 국제세의 2008년판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수입은 153조1천억원으로 2006년(130조3천억원)에 비해 17.5%(22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제수입은 2003년 107조원에서 2004년 110조2천억원, 2005년 120조4천억원, 2006년 130조3천억원, 2007년 153조1천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세(40조9천억원), 소득세(38조9천억원), 법인세(35조4천억원) 등 3대 세목이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5천억

원(7.5%), 특별소비세는 5조2천억원(3.4%)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300조원 돌파=지난해 신용카드(기업구매 전용카드 제외)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310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0.2%(52조원) 증가했다.

이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60조원이었고 현금영수증은 50조원이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은 2005년 217조원, 2006년 258조원이었다.

<법인 세무조사 비율 1.12%=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1.12%로 2006년에 비해 0.42%포인트 낮아졌지만 부과세액은 3조9천362억원으로 40.6%(1조1천370억원) 늘어났다. /연합뉴스



세수·납세인원·국제공무원 수 추이

저소득층 '패키지 취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알선 ... 휴대전화 요금 감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비도 지급된다.

노동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자활사업 대상자'가 대상이며 3월부터는 일반 신청자도 받을 계획이다. 일반 신청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 프로그램에 1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123억원, 빈자리 개척 20억원, 취업알선 18억원, 취업성공수당 50억원 등 23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업 통신정책국장은 29일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누구나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130만명이 넘는 이대까지 내년 3월부터 130만명이 넘는 이대까지 내년 3월까지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KT - KBC광주방송 등 9개 지역 민방

IPTV 재송신·콘텐츠 공급 합의

KT와 KBC광주방송 등 9개 지역 민방방송사가 29일 인터넷TV(IPTV) 동시 재송신 및 콘텐츠 공급에 합의했다.

이로써 KT는 지난 8월 광주MBC 등 지역 MBC와 권역별 재송신을 합의한데 이어 이날 지역 민방의 SBS 프로그램을 확보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IPTV 제공사업자 3개사 중 KT만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지상파 방송과 실시간 재송신 문제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윤경림 KT 미디어본부장은 "지역 민방과의 협상 타결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물론 전국의 메가TV 시청자들도 새로운 방송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코리아교육개발원	교육기획 및 관리, 영업지원 사원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31	062-366-0707
동원건설☐	현장 15톤 덩크 운전 경력직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2/31	062-228-1254
이베르스트정보기술	전신실 오퍼레이터 신입사원(광주 근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2-445-1180
아름다운세상	2009년 정규직 디자이너(출판, 편집디자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1	062-232-0148
SK텔레콤 서광정보	[정규직]고객상담/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02	062-366-2011
해성정보통신	일반사무 및 매장관리 직원(경력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03	010-6622-8285
한국다이어트연구소☐	[광주]IMR 관련 영업부(IMR)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4	02-3453-3300
☐Heaven	경리 및 비서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5	062-224-7379
씨큐어넷	신한카드 광주고객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05	011-9605-9696
인원산업☐	토목공무 경력관리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05	062-655-4840
☐진송종합건설	경리/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6	062-373-6990
대성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및 시간강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06	062-513-6110
튜닝아이	도색직원/일리스트 프린트 작업 담당 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07	062-372-9002

Recruiting JobKorea Network 062. 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코스피 '배당락 충격' 미미

연기금·외국인 매수로 소폭 하락

코스피지수가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배당락 충격을 거의 흡수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7포인트(0.02%) 내린 1,117.59에 마감, 이른 현금배당락을 감안한 코스피지수 1,088.93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추정했던 현금배당락폭이 28.93포인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지수는 배당락에 따른 지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다. 개인이 5거래일 만에 '팔자'에 나서 1천93억여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9억원과 306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8포인트(0.93%) 내린 329.18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달러화 매도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3거래일째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36.00원 하락한 1,263.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달 3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